

71. 주물공에게서 발생한 석면폐증

성별	여	나이	48세	직종	산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김OO은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중 2007년 10월 2일 폐절제술을 실시하고 병리학적 검사에서 석면폐증으로 확진되었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김OO은 1976년경부터 주물업종 일을 시작하였으며, 약 23년간 조형작업을, 7년간 용해작업을 하였다. 당시 흑연 도가니 기름 바나식 로를 썼다고 하며 용량 이 100kg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다른 업체로 옮겨 고주파 진공관식 로를 사용했다고 하며 기계와 로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석면테이프로 감았다고 한다. 김OO의 주물공장 근무 기간 30년에 대해 증명해주는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가 함께 있어 이를 증명해 주었으며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2006년 5월 2일에 조형공으로 입사하였고 석면을 직접 취급은 하지 않았으나 1개월에 최소 4번 정도 축로 작업을 하는 데 이때 석면을 사용한다고 한다. 축로 작업 당시에는 로 안에 석면을 넣고 밀봉하기 때문에 석면이 날린다고 할 수 없으나 다음 축로 작업 시 이전 축로 작업에 사용하였던 석면을 해체한 후 조형 작업에 사용한 규사와 함께 공장 앞의 바닥에 1-2일 정도 보관하였다가 트럭으로 실어서 운반하는데 바닥에 보관할 때와 트럭에 실을 때 바람에 날려 흡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평소 특이 소견 없다가 2006년 9월경부터 목이 따갑고 기침과 노란 가래가 나오고 새벽에 기침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이 있어 2006년 10월 9일 흉부 x-ray 검사 상 이상이 발견되어 CT 촬영을 실시한 후 결핵 의심되어 약물치료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정확한 상병명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세 번째 기관지경 조직검사 상에서 석면, 석탄가루, 기생충 등이 나와서 동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2007년 10월 2일 우상엽 절제술 및 우중엽 췌기 절제술(개흉술) 시행 받고 동시에 이루어진 병리학적 검사 결과 석면폐증 확진 받았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김OO은

- ① 수술을 통해 석면폐증으로 확진 받았는데,직접 석면 물질을 다루거나 석면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 ② 30년간 주물공장에 근무하였으며 로 해체, 축로 작업 및 다른 석면 해체 작업 등의 석면 관련 작업에 의해 공장 내부에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 ③ 조직학적인 검사 결과 및 광물학적인 검사 결과가 외국의 진단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적 노출의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근로자 김OO의 석면폐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